

'미국 1호' 레즈비언 주지사 … '이색 당선자'들

지난 8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는 헌인 미주 이민 역사상 최초의 한국계 부지사, 미국 역사상 1호 레즈비언 주지사와 첫 Z세대(1996년 이후 출생) 연방 하원의원, 첫 부녀(父女) 주지사 등 '이색 당선자'들이 쏟아졌다.

■ 첫 한국계 부지사



▲ 실비아 루크 하와이 부지사.
사진=sylvialukeforlg.com

한인 이민 120년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계 부지사가 탄생했다. 실비아 장 루크(민주) 하와이주 부지사 후보는 20만6,479표(67.22%)를 얻어 세아울라 투파이(공화) 부지사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따돌리고 당선됐다.

■ 현존 유일 흑인 주지사, 레즈비언 주지사



▲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왼쪽)과 마우라 힐리 매사추세츠 주지사.
사진=wesmoore.com/adevarul.ro



메릴랜드주에서 '한국 사위' 래리 호건 현 주지사에 뒤이어 주지사로 당선된 웨스 무어(민주) 후보는 역사상 첫 흑인 메릴랜드 주지사이자 미국 내 현존하는 유일한 흑인 주지사가 됐다.

또 매사추세츠 주지사로 당선된 마우라 힐리(민주) 후보는 미국에서 주지사로 선출된 첫 공식 레즈비언 여성 이자 주 역사상 처음으로 주지사에 선출된 여성 기록을 세우게 됐다. 그는 매사추세츠에서 임기 승계가 아닌 선거를 통해 당선된 첫 여성 주지사이기도 하다.

■ 첫 Z세대 연방의원, 원주민 출신 상원의원



▲ 맥스웰 프로스트 플로리다 연방 하원의원(왼쪽)과 마크웨인 멀린 오클라호마 연방 상원의원. 사진=inquirer.com/theguardian.com

플로리다 10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의원으로 당선된 맥스웰 프로스트(민주)는 올해 25세로 1996년 이후 태어난 Z세대 중 첫 연방의원이 됐다. 프로스트는 상원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벨 데밍스(민주)의 뒤를 이을 예정이다.

오클라호마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원주민 출신 마크웨인 멀린(공화) 후보가 61.8%를 득표해 당선됐다. 오클라호마에서 원주민 상원의원이 탄생한 것은 1907년 당선된 로버트 오언 상원의원 이후 100여 년 만이다.

■ 첫 여성, 부녀 주지사



▲ 세라 허커비 아칸소 주지사(왼쪽)와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사진=thv11.com/hysut.org



아칸소주에서도 첫 여성 주지사가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백악관 대변인을 지낸 세라 허커비 샌더스(공화) 후보가 크리스 존스(민주) 후보를 꺾고 주지사에 당선됐다. 특히 그의 아버지인 마이크 허커비는 1996년 7월부터 2007년 1월까지 아칸소 주지사를 지낸 바 있어 첫 부녀 주지사 기록도 세웠다.

캐시 호컬(민주) 뉴욕 주지사는 20년 만의 '레드 웨이브' (공화당 압승)를 막아내며 뉴욕주 첫 선출 여성 주지사 기록을 쓰게 됐다.

희비 엇갈린 바이든과 트럼프

지난 8일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선전하며 '레드 웨이브(공화당 물결)' 가 거세게 일 것이라 예상이 빗나갔다. 의회 습격 등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한 트럼프를 견제한다는 심리 외에 낙태권 이슈도 민주당 결집에 한몫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10일 새벽 1시(미 동부시간) 기준 하원에서는 공화당이 10여 석 차로 4년 만에 탈환에 성공할 전망이나 상원은 양당이 초박빙 접전 중이다. 상원의 남은 3석은 애리조나와 네바다, 조지아주인데 애리조나는 민주당, 네바다는 공화당이 이기고 있는 상황이다. 남은 1석인 조지아주는 민주당 라파엘 워녹 현 상원의원의 득표율이 49.2%, 공화당 허셜 워커 후보는 48.7%



▲ 중간선거 결과가 예상을 빗나가며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바이든 대통령의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사진/편집=krdo.com/타운뉴스

여서 결선투표가 불가피하다. 조지아주는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투표를 한다. 애리조나와 네바다주에

서 현재 득표율대로 결과가 확정된다면 민주당과 공화당의 의석수는 각각 49석과 50석이므로, 내달 6일 치러질 조지아주 결선투표에서 상원 구도가 확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이긴다면 양당이 각각 50석씩 양분하나 당연직 상원의장인 부통령이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므로 지금처럼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하게 된다.

공화당의 이번 선거 성적표가 예상보다 낮은 편에 이달 15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타격도 클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통령 집권 2년 차에 치러져 매번 '집권당의 무덤'으로 불리는 중간선거에서 선전한 바이든 대통령은 재선 가능에 숨통이 트 전망이다.

낱말퍼즐 정답

1	골		2	시	궁	3	창			
잡		4	비	계		5	피	카	6	소
7	이	8	정	표		9	영		10	가
	화					11	주	구	12	려
12	진	수	성	13	잔		14	모	15	터
통			조			16	모	니	17	미
제	주	17	도		18	거	래		19	마
						19	무	리		널

1446호 숫자퍼즐 (이번호 정답은 P47에 있습니다)

9	1				8		2	
		6			9			3
	2			1		6	7	
		9	8				6	5
6				1	5		7	
		7				9		
			3			6	4	
2	5		6					
		1			4	8	9	